

수능 D-40 영역별 마무리 학습법

기출문제 세심한 분석 실천감각 익혀라

2011학년도 대입 관문인 수능능력 시험이 40여일 앞으로 다가 오면서 과목별 '선택과 집중' 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취약한 과목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공부하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집중 공략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언어영역의 경우 EBS 교재에 수록된 작품들은 미리 익혀두는 것이 좋다고 한다. 수리영역은 기본 개념을 정리한 후 기출문제를 접함으로써 풀이와 이해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어 영역은 매일 듣기 훈련을 반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약 영역은 특집 가능한 부분을 집중 공략=전 범위를 체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불안에 쫓겨 무턱대고 처음부터 공부하는 것은 시간낭비다. 현재 부족한 영역일지라도 접수특이 가능한 부분을 집중공략하자. 아무리 취약한 과목이라도 자신 있는 단원이 하나쯤은 있기 마련. 완전히 포기하는 것보다 특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공략하는 것이 좋다. 물론 한 영역에만 치중하지 말고 학습 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

**언어, EBS 교재 수록 작품들 미리 익혀두고
수리, 기본 개념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라
외국어, 매일 듣기 훈련으로 실천 대비하라**

도록 영역별로 공부시간을 배분한다. 모든 과목에 대해 적절한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어영역=언어영역 범위는 특정 학년이나 교과목의 범위를 넘어선다. 모든 문학 작품들을 체크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불안에 쫓겨 무턱대고 처음부터 공부하는 것은 시간낭비다. 현재 부족한 영역일지라도 접수특이 가능한 부분을 집중공략하자. 아무리 취약한 과목이라도 자신 있는 단원이 하나쯤은 있기 마련. 완전히 포기하는 것보다 특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공략하는 것이 좋다. 물론 한 영역에만 치중하지 말고 학습 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

◇수리영역=수리영역은 다른 영역보다 EBS 연계율이 조금 더 높은 경향을 보이므로 EBS 교재와 강의로 꼼꼼하게 학습하는 것이 좋다. 주의할 것은 너무 쉬운 문제집은 이제 넘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고난도 문항에 도전하면서 개념을 익혀가는 것이 방법이다.

특히 수리영역은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과 창의력을 요구하는 영역임을 잊지 말자. 기본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개념 정리 후 기출문제 및 모의고사문제 등 실전문제를 매일 풀이하고 풀이와 이해감을 익혀두는 게 필요하다.

◇외국어영역=외국어영역 문제

첫 관문은 듣기와 말하기이다. 여기서부터 높은 집중력을 보여준다면 독해 등의 부분에서도 실수하지 않고 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매일 듣기 훈련으로 실천에 대비하자. 영자신문이나 시사성 자료들을 체크하는 등 다양한 소재의 지문을 봐야 한다. 무엇보다 내용의 이해가 우선이다. 지문의 일부보다는 핵심만 읽고 문제를 푸는 방식은 위험한 모험을 하는 것과 같다.

◇사회·과학탐구영역=사회탐구 영역의 마무리는 문제풀이가 기본이다. 서로 다른 단원의 내용들을 연결하고 구성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교과개념을 정리하고, EBS 교재와 기출 문제를 통해 다양한 문제 스타일을 익혀두자. 과학탐구영역은 그래프 자료 등을 이용한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일반적인 자료보다는 새로운 내용을 접목시키거나 변형된 자료의 파악에 중점을 두자. 과학탐구영역 등 실전문제를 매일 풀이하고 풀이와 이해감을 익혀두는 게 필요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우리는 나이팅게일 후에

서강정보대학 간호과(학과장 박덕룡 교수) 학생들이 7일 대학본부 서정홀에서 나이팅게일의 송고한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의 실천을 다짐하는 '제25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갖고 있다.

광주대 주얼리 디자인과 서울·광주서 졸업작품展

광주대 주얼리 디자인과가 서울과 광주에서 잇따라 졸업작품 전시회를 갖는다.

광주대 주얼리 디자인학과 4학년 학생 23명은 오는 13~19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공예문화진흥원에서 2010학년도 졸업작품 전시회를 갖는다. 학생들은 이번 전시회에서 지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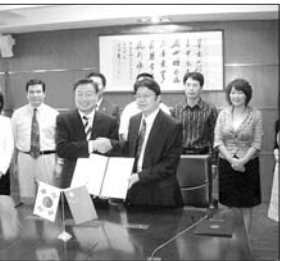
년 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바탕으로 상품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산업장신구, 예술장신구, 테이블 웨어, 입체조형물 등 100여점을 선보인다.

또 20~26일에는 광주대 극기관 1층 아트홀로 전시 장소를 옮겨 동료 학생과 교직원, 지역민들에게 불거리를 선사한다. /채희종기자 chae@

중절강성 대학교

광주여대 자매결연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오장원)는 최근 중국 항주의 '절강미디어대학'과 '절강수인대학' 등 2개 대학과 우호교류를 위한 자매결연 협정을 맺었다.



광주여대와 결연 대학들은 2년 이상을 이수한 재학생이 한국어와 중국어 연수과정을 통해 각 대학의 입학요건에 도달할 경우, 서로 3학년에 편입해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절강미디어대학은 국가방송통신국과 절강성 정부가 공동설립하고 관리하는 대학으로, 중국에서 미디어 인재 양성의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절강수인대학은 본과 과정에 24개 학과와 전문대학 과정에 29개 학과를 개설했으며, 일본과 캐나다 등 국제교류가 활발한 대학이다. /채희종기자 chae@

서강정보대 사회복지과 학술제·현장실습 발표회

서강정보대학 사회복지과(학과장 이용연교수)는 최근 대학 서정홀에서 '제24회 학술제 및 현장실습 발표회'를 개최했다.

사회복지과 학술제는 재학생들이 교실과 현장에서 배운 이론과 실습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학생들의 학술행사로 매년 열린다. 학술제 행사와 더불어 학생들의 일일호프와 졸업생 및 교수들의 후원으로 적립된 난장학회 장학금 전달식과 일본 취업연수 학생들에 대한 청년사업단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여성 ROTC 설명회

7일 오후 전남대 학군단 군사학 강의실에서 열린 '전남대 여성 ROTC 2차 설명회'에 참가한 여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1차 설명회는 지난달 30일 열렸다.

전남대 진도 자연학습장 문 열어

9만㎡ 부지에 3층 규모...교육·연구 시설

전남대학교 진도 자연학습장이 7일 문을 열었다. 진도군 일회면 남동리에 위치한 자연학습장은 9만 4110㎡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앞으로 전남대생들의 교육·연구를 위한 시설로 사용된다.



1998년 평생교육 시설 설립을 조건으로 9만여㎡의 부지를 전남대 발전기금재단에 기부채납한 것. 이에 양 기관은 6일 개관식과 함께 자연학습장 이용 협약을 체결하고 직원들의 복지시설 및 학습 지원 시설로 공동 활용하기로 했으며 비용 또한 공동 분담하기로 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한국어 사랑 어울림 한마당

조선대 한국어학당 외국인 한글 경연

제564돌 한글날을 맞아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더불어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일깨우는 행사가 열린다.

조선대 한국어학당(학당장 강희숙)은 한글학회 광주·전남지회와 함께 '제3회 한국어 사랑 어울림 한마당'을 9일 오전 11시 법과대학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및 외국 유학생에게 한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이날 행사는 ▲1부는 초청강연으로 이덕태 전남대 교수(일문과)가 '우리말 속에 숨은 일본어'를 강연하고 ▲2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과 이주여성들이 참여해 '잊을 수 없는 단 한사랑', '우리나라는요', '옛날 옛적에'라는 세 가지 주제로 벌이는 한글 경연이 펼쳐진다.

한글 경연 '잊을 수 없는 단 한 사랑'은 필리핀의 크리스텔 가요나(순천대) 등 유학생 7명이 출연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에 대해 5분 스피치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옛날 옛적에'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5명이 몽골, 캄보디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출신 국가의 신화나 전설, 민담 등을 3~4분 스피치 한다. '우리나라는요'는 외국인 학생과 한국 학생이 조를 이뤄 공동으로 자기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 외국인 학생이 발표하는 팀 프로젝트 형식으로 6명이 참가한다. 강희숙 한국어학당장(국어국문학과)은 "이 행사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진정한 소통의 장으로서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2010. 10. 9(토) pm 2:30~4:30

Dourthe No.1 Blanc 2009, Bordeaux AOC, White / Thomas Barton Saint Emilion 2006, Saint Emilion AOC, Red Ch. Belgrave 2005, Haut-Medoc AOC, Grand Cru Classe / Essence 2003, Bordeaux AOC, Super Bordeaux

'에꼴 뒤 뱅과 함께 하는 보르도 와인 특강'

광주국제식품전에서 보르도 와인스쿨인 '에꼴 뒤 뱅과 함께하는 보르도 와인 특강'이 진행됩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보르도 와인의 새로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특강으로, 광주에서 좀처럼 만나기 힘든 세미나입니다. 와인 애호가, 소믈리에, 레스토랑 관계자, 일반인, 학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장소 :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 세미나실(2층 207호) 참가신청 : www.winepartner.co.kr을 통해 온라인 등록
인원 : 온라인 사전 등록 60명; 현장 등록 10명
참가비 : 2만원(사전 등록)/3만원(현장 등록)

<http://cafe.naver.com/winepartner>

movieholic 영화에 빠지다

상무점

1관	방가?방가! (12세)
2관	마루 밀아리테/퀴즈왕
3관	레터스 투 줄리엣 (12세)
4관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
5관	해결사 (15세)
6관	슈퍼데드(전체)/아저씨 (18세)/레지던트이블4(18세)
7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15세)
8관	슈퍼데드(전체)/적인결-축천우후의 비밀(12세)
9관	무적자 (15세)
10관	적인결-축천우후의 비밀 (12세)

항토시영! 영화시영! 매일 심야시영/호남최대주자장 / www.cinus.co.kr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MEGABOX

M관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 최고급관
2관	적인결-축천우후의 비밀(12세)
3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18세)
4관	해결사 (15세)
5관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
6관	레지던트이블4 (18세)
7관	방가?방가! (12세)
8관	마루 밀아리테(전체)/무적자(15세)
9관	레터스 투 줄리엣 (12세)
10관	레터스 투 줄리엣 (12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자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산요금 부과

CINUS

1관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
2관	적인결-축천우후의 비밀(12세)
3관	방가?방가!(12세)/레지던트이블4(18세)
4관	해결사 (15세)/아저씨 (18세)
5관	슈퍼데드(전체)/무적자 (15세)
6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18세)
7관	레터스 투 줄리엣 (12세)

색깔있는 영화시영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